



2 흡스프로세미나 이대로 괜찮은가 4 글로벌배움터, 운동 어디서 하고 있나요? 5 유달승 교수의 이란 제대로 보기 8 외대산악회의 히말라야 루굴라 정복기



훈련일 뿐인데 꼭 건물 밖으로 피해야하나요? 지난 9일 오후 2시 서울배움터 국제학사에서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화재 대피훈련을 실시했다. 교내 방송 시작 후 약 10분 뒤 3층에 훈련용 연막탄을 점화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연막탄이 터진 후에도 이렇듯 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심지어 훈련 도중 건물 안에 들어가기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진행에 있어서도 방송으로 알릴 뿐 안전요원들의 별다른 지시나 제재는 없어 미흡한 점을 드러냈다. 김정원(국제 12) 군은 이번 훈련에 대해 “학생들이 실제 상황이 아닌 훈련이라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 같다”며 “이런 훈련은 만약에 있을 사고에도 철저하게 대처하지 못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신민지 기자 86hufspress@hufs.ac.kr

우리학교 60주년 기념 이미지(U) 컬러와 슬로건 확장



▲새로 확장된 네이비와 골드계열의 UI 컬러 현수막 예시 모습이다. 이는 교내 게시용 현수막으로 활용된다. 교외 홍보용 현수막에는 이에 60주년 엠블럼이 추가된다.

우리학교가 개교 60주년을 맞이해 지난 12일 새로운 대학 이미지(University Identity, 이하 UI)컬러와 슬로건을 확장했다. UI실무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새로운 UI컬러는 네이비와 골드 계열이 조합된 것이다. 새로운 UI컬러는 앞으로 기존의 청록색 계열 UI와 함께 사용된다.

로고 컬러도 네이비 계열로 확장됐다. 이유나 홍보실장은 “청록색 계열의 기존 컬러는 눈에 잘 띄지 않아 변경 논의가 계속 진행돼 왔다”며 “오랫동안 사용된 기존의 UI가 학교 색으로 굳혀진 데다 예산상의 문제로 UI컬러의 교체가 아닌 추가·확장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추가된 UI컬러는 “우리학교를 좀 더 품격 있고 세련되게 만들겠다”는 김인철 총장의 의지를 담고 있기도 하다. 확장된 우리학교 UI는 앞으로 학교 정체성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며 우리학교 기념품 등 UI 어플리케이션으로 대내외적 매체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태영(통번역·스페

인어 13) 군은 “예전보다 색이 고급스럽고 깔끔한 것 같다”고 색상 확장에 대한 소감을 말했다.

한편 지난 해 11월 13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개교 60주년 기념 슬로건 공모전에서 ‘세계를 품은 외대의 60년, 세계를 이끌 100년의 약속이 대상작으로 선정됐다. 응모작은 총 465개로 학내 구성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대상을 받은 김승현(서양어·독일어 09)군은 “우리학교의 고유 가치관을 가지고 국제화의 길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슬로건을 만들었다”며 “지나온 역사와 미래를 바라보는 글로벌 외대가 되길 소망한다”고 대상소감을 밝혔다. 또 최우수는 “글로벌 60년을 넘어 최고의 100년을 향하여”, 가작은 ‘HUIS, 글로벌 60년, 미래를 향한 100년’과 ‘외대, 한국을 움직인 60년 세계를 움직일 100년’이 당선됐다.

당선작들은 60주년 슬로건 제작에 반영돼 ‘세계를 품은 60년, 세계를 이끌 100년’이라는 슬로건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 새로 제작된 슬로건은 기존의 ‘외대를 만나면 세계가 보인다’와 함께 사용된다. 새로운 60주년 기념 슬로건에 대해 설수영(LD 13) 양은 “새로운 슬로건이 기존의 슬로건을 넘어서는 강한 인상을 주지 못한다”며 아쉬움을 보였다.

임유선 기자 88lys@hufs.ac.kr

학교-노조 단체교섭 본격 시작... 단체협약 이뤄지나

7일 학교와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단체 및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날 첫 교섭은 상견례를 겸한 교섭회의로 진행됐다. 노조는 단체교섭 진행에 앞서 서울배움터 본관 앞에서 단·임투(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쟁취를 위한 투쟁 결의) 출정식을 갖기도 했다.

단체교섭은 노조의 대표자와 사용자가 근로 조건의 유지 및 개선에 관해 교섭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근로에 관한 법규 및 임금을 정하게 된다. 이번

단체교섭에서 노조 측이 요구하는 안은 △임금수준 회복과 2.8% 인상안 △차별임금 철폐 △기능직 폐지 △정년연장 △노사화합 조치 등으로 지난 해와 큰 차이가 없다. 이번 단체교섭에 대해 정재원 노조 사무국장은 “지난 해 교섭이 이뤄지기는 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로 끝났다”며 “지난 해 있었던 단체교섭의 연장선 상”이라고 말했다. 노조 측 핵심 안건은 2010년 이후 새로 채용된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는 성과급제와 기능직 등 직원들에 대한 차별을 철폐

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지난 4월 3일, 3년 6개월 전 일방적으로 옮겨졌던 노조 사무실이 본래 위치인 본관으로 돌아오는 등 학교와 노조의 관계가 개선되는 듯 보이며 관계자들은 이번 단체교섭이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을 전망했다. 그러나 2차 교섭이 이뤄진 14일 이후 노조는 “학교 측이 진심으로 노조와 대화하고자 하는지 의심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2009년 이후 5년간 단 한 번도 체결되지 못한 단체협약이 또 한 해 미뤄지는 것은 아

닌지 우려를 나타냈다. 노조 측은 학교가 자료협조 요청에 ‘시간이 필요하다’,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는 식의 대답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학교가 제시한 ‘노조 가입제한 범위 확대’는 개악안(改惡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승철 노조 지부장은 “이번 단체교섭이 긍정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막상 시작해보니 기대했던 것과는 어긋났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처우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직원을 학교 운영의 동반자로 인정해주

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뤄진 단체교섭은 단 두 차례뿐이기에 양 측이 만족할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있다. 탁경구 인사혁신팀장은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임해 이번에는 꼭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신승철 노조 지부장도 “대화로 얼마든지 입장 차이를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며 노조는 얼마든지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합의의 여지를 남겼다.

임수진 기자 87curious@hufs.ac.kr

남들과 다른 대학생살을 꿈꾸는 당신, 그렇다면 외대학보를 주목하라

외대학보사 89기 수습기자 및 사진기자 모집

외대학보는 1955년 창간, 이번 해로 59주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학교 유일 국문 언론사입니다. 우리학교 공기관(公器) 외대학보사에서 는 사실을 넘어 진실을 추구할 열정과 패기로 뭉친 신입기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모집기간 : 2014년 5월 19일(월) ~ 5월 29일(목) 11일간
모집대상 : 양 배움터 1학년 1학기 ~ 2학년 2학기 재학생
지원서 마감일 : 5월 29일(목)

필기시험 및 면접일 : 5월 31일(토)
합격자 발표일 : 6월 1일(일)

지원서 수령 및 제출

양 배움터 학생기자실에서 직접 수령 또는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후 기자실 직접 제출 또는 이메일 제출(hufspress@hanmail.net)

- ▶ 서울배움터 학생기자실_학생회관 401호 02)2173-2504
- ▶ 글로벌배움터 학생기자실_학생회관 212호 031)330-4112

문의사항 : 편집장 신민지 (010-4002-0299, 86hufspress@hufs.ac.kr)

말레이 세계와의 가교 역할한 마인어과 창립 50주년 기념식 성황리에 마무리



▲16일에 있었던 '문화교류의 밤' 행사에서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무용단이 전통춤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1964년 창설된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이하 마인어과)는 이번 해 창립 5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에 걸친 기념행사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지에서 100여명의 외국인 교수가 우리학교를 방문했다. 우리학교 내 단일학과에서 개최한 국제학회에 100명이 넘는 외국인 교수가 참석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참가자들은 세미나에 참석해 학문 교류와 함께 마인어과 50주년 행사의 일환인 서울 시내 관광과 문화 공연을 즐겼다.

14일 오후 6시에 열린 환영행사에는 재학생, 교수진과 외국인 교수 등 총 180여명이 참석해 성대한 시작을 알렸다. 마인어과 원어노래패 '꾸나니'의 축하공연도 이어졌다. 임세훈(동양어·마인어 13) 군은 "50주년을 맞이해 기쁘고, 뜻 깊은 행사에서 공연을 할 수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마인어과 1기 졸업생이자 교수로 명예퇴직한 안영호 마인어과 명예교수는 "우리과의 역사와 함께 해온 만큼 감회가 남다르다"며 "높아진 위상만큼 학생

들은 학과공부에 더 매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 날 15일에는 핵심행사인 국제 학회 'Bridging the Unbridgeable: Changing Paradigms in Malay-Indonesian Studies'가 열렸다. 개회식에서 김인철 총장은 "학회 주제 'Bridging the Unbridgeable'은 우리학교의 미래가치와도 일치한다"며 "마인어과의 향후 50년은 연구 분야나 국적에 상관없이 말레이·인도네시아학문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학문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후 5시까지 진행된 학회에서 외국인 교수들은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교류했다. 서명교 마인어과 교수는 "이전까지 학문 연구가 분리됐다면 근래에는 서로 다른 분야는 물론 나라간, 학교간의 학문을 연결하는 것이 중요한 흐름"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말레이 세계의 학문과 관계를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50주년 기념행사의 마지막인 16일에는 우리학교를 방문한 외국인 교수들이 재학생과 함께한 서울 도심관광과 공연 '문화교류의 밤'으로 장식됐다. 공연은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무용단의 전통춤공연과 한국 공연단의 판소리, 고전무용 공연으로 구성됐다. 원희찬(동양어·마인어 10) 마인어과 학생회장은 "앞으로도 발전을 거듭하며 재학생도 학과를 빛낼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고영훈 학과장은 "단순한 50주년을 넘어 많은 성장을 동반해 더욱 기쁘다"며 "향후 졸업생들이 더욱 발전할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양국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88question@hufs.ac.kr

홉스프로세미나 시행 첫해... 콩나물시루 같은 오바마훅은 불만의 목소리로 가득

이번 학기에 신설된 서울배움터 특별교양강의인 홉스프로세미나(HUFS Proseminar, 이하 프로세미나)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주요동문 및 저명인사의 토크쇼 특강을 제공한다. 외대인으로서는 정체성을 심어주고 경력개발 및 대학생활의 로드맵 제시를 목표로한 프로세미나는 채 한 학기도 되지 않아 운영 전반에 대한 신입생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그 중 비중이 가장 큰 불만은 의무로 수강해야 한다는 점이다. 본지에서 신입생 1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0%의 학생이 의무수강에 반대했다. 이 중 30%는 '너무 늦은 수업시간'을 그 이유로 꼽았다. 그 다음으로 '시간표를 구성하기 힘든 점(27%)'과 '유익하지 않은 내용(26%)'이 뒤를 이었다. 송지음(상경·국통 14) 양은 "의무수강하다 보니 수업에 무관심한 학생들까지 참여해 분위기가 어수선하다"며 "차라리 선택수강으로 관심 있는 학생들만 수강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1800명이 넘는 수강생이 한날한시에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문제도 있다. 총 응답자 중 프로세미나 수업의 질에 불만이 있는 67%의 학생들은 '통제 범위를 벗어난 너무 많은 인원 탓에 수업에 집중할 수 없다'는 점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수업 때마다 강연장이 소란스러움은 물론 뒷자리에 앉은 학생들은 강연자의 목소리를 들

기도 힘들다.

늦은 강의시간도 불만의 원인이다. 매주 수요일 오후 6시에 진행되는 강의는 보통 한 시간 이상 진행된다. 김현숙 서울배움터 경력개발센터팀장은 "이미 다른 강의들의 시간이 확정된 후인 2월에 프로세미나를 신설하다보니 저녁시간대 배정이 불가피했다"며 "다음 해에는 7, 8교시 정도에 배정하도록 할 것"이라 말했다.

학생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수업내용 역시 개선 사항으로 꼽혔다. 학생들은 '많은 학생이 통제되지 않는 점' 다음으로 '평범한 강의 내용'을 지적했다. 황진우(동양어대 14) 군은 "저명인사의 강연으로 기대가 컸지만 정작 강연자들의 수업내용은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와 같은 천편일률적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학생들의 불만을 수용해 현재 강연자만의 특화된 경험담과 주제 위주의 강연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학생들이 보다 공감할 수 있도록 젊은 연령대의 강연자를 섭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로세미나 개설 첫해의 시행착오에 대해 김 팀장은 "실무진도 학생들의 불만에 공감한다"며 "종강 후 수강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다음 해 프로세미나 운영에 반영할 것"이라 전망을 밝혔다.

김태훈 기자 88question@hufs.ac.kr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계속되는 갈등

장한민(일반·경영 13)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과 정하은(일반·글로벌문화컨텐츠 14) 부총학생회장 및 일부 집행부원간 내부갈등이 절정에 이르고 있다. 일반대학원 총학생회는 내부갈등으로 학기 막바지까지 상반기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다. 지난 13일 상반기 대표자 회의의 개최에 대한 논의자리에서 장 총학생회장은 "계속되는 학생회 내부분열로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법적 공방이 끝난 후인 6월 초가 개최에 적당한 시기"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 부총학생회장 및 집행부원 4명은 "법적공방과 회의는 별개의 문제이기에 예정된 16일에 상반기 대표자 회의를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양 측 모두 입장을 굽히지 않아 장 총학생회장은 "재직 대표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에만 참여할 것"이라 밝혔다. 각 학과의 사업계획과 보고를 받는 상반기 대표자 회의는 양 배움터 각각 따로 개최됐다. 먼저 서울배움터에서는 16일 오후 7시 대학원 2층 BRICs홀에서 총 12명의 과대표자와 원우들의 참석아래 진행됐다. 글로벌배움터의 대표자 회의는 19일 오후 1시 30분 공학관

213호에서 열렸다. 장 총학생회장은 결국 두 회의 모두 불참했다.

총학생회의 내부대립은 장 총학생회장이 정 부총학생회장을 탄핵하겠다는 서명운동을 계기로 시작됐다. 이후 정 부총학생회장 및 집행부 4명은 장 총학생회장의 공공유용과 사문서 위조 혐의를 내세우며 총학생회장의 책임론을 주장했다. 이 문제로 대학원우사이가 떠들썩하자 결국 장 총학생회장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정 부총학생회장과 집행부 4명은 정 총학생회장이 혐의를 인정하자 회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했으나 장 총학생회장이 거절했다. 게다가 장 총학생회장이 이와 관련해 일부 집행부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의 대립에 대해 한 대학원우는 "총학생회 내 사사로운 감정, 이권, 법적 대응으로 원우들의 면학 분위기를 망가뜨리고 있다"며 "원우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빠른 정상화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유선 기자 88lys@hufs.ac.kr

100년 외대와 함께 100년 중국어대를 중국어대 60주년 행사 개최

지난 9일 우리학교 개교 60주년과 함께 60주년을 맞이한 중국어대 60주년 행사가 서울배움터 오바마홀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10일 개최된 제 3차 한국외대-북경대학 중문포럼 개막식이 함께 개최됐다. 중국어대 60주년 행사에는 김인철 총장, 최충희 서울배움터 부총장, 아이흥겨 중국대사관 교육참사관, 김광익 서울대 교수 등 재학생과 더불어 많은 귀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박재우 중국어대 학장은 "중국어대 창립 60주년을 맞아 지난 발자취를 회고하고 자축하며 앞으로 100년 중국어대를 만들기 위해 박찬 가슴으로 이 자리를 만들었다"며 행사 소감을 밝혔다. 박 학장은 중국어대의 강점으로 △국내 최대의 중국어 교육기관 △통번역, 국제통상, 기업, 외교, 문화교류 등 전문성을 갖춘 인재 배출 △교육

의 질을 최고로 유지하는 시스템의 다양화 등을 꼽았다.

자매대학과 국내 각 대학 중국어과에서 온 축하 메시지에 이어 치영상 북경대학 교수와 김광익 서울대 교수의 강연이 이어졌다. 뒤이어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어대 동문의 축하영상과 60년 발자취 동영상 상을 시청했다. 이어 우리학교 중국어대 학생들이 중국전통의상을 맞춰 입고 춤과 노래를 선보인 한중문화공연으로 행사는 마무리됐다.

백수정(중국·중국 12) 중국어대 학생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중국어대의 오랜 역사를 알게 됐고 훌륭한 선배님들을 뵈게 돼 더욱 자부심을 느꼈다"며 "지금까지와 같이 더욱 미래를 위해 나아가는 학생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다정 기자 88daisy@hufs.ac.kr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국민행복이 시작됩니다

행복주택으로부터! 주거복지로부터!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집 없는 서민들의 울타리가 되고
소외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국민주거복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행복주택사업
오류·기차·공통·고전·목동·잠실·송파 등 수도권 도심 7곳에 임대주택 1만호와 업무·상업기능과 도심재생을 연계하여 친환경 복합주거타운으로 조성.

서민임대주택사업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 우리나라 장기임대주택의 84%인 66만호를 시세의 30~60%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주거복지사업
취약계층과 소년소녀가장 등을 위해 긴급주거지원과 전세주택지원하고 기존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로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주거복지를 지원.

한국어교원양성과정 34기 수강생 모집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KF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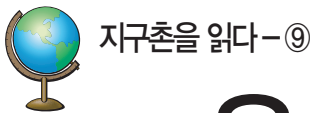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에서는 여류학기를 맞아 한국어교육에 관심 있는 대학생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제34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한국어교원 3급 자격취득 희망자 사전 이수 코스임)

구 분	일시 / 기간	장 소	비 고
입학지원서 교부(인터넷 작성)	2014. 05. 26(월) ~ 2014. 06. 05(목)	www.korean.ac.kr	
입학지원 및 서류제출	2014. 05. 26(월) ~ 2014. 06. 05(목) 17:00	한국어문화교육원 운영팀 (대학본부 4층 444호)	우편제출의 경우 2014. 06. 05(목) 도착분에 한함
합격자 발표	2014. 06. 12(목) 14:00 이후	홈페이지 www.korean.ac.kr	
합격자 등록	2014. 06. 13(금)~06. 19(목)	납입방법은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함	

2. 모집인원: 00명
3. 교육기간: 2014. 06. 30(월) ~ 2014. 08. 01(금), 128시간
4. 수업요일 및 시간: 월~금 09:30~17:30
5. 전형방법: 서류전형(입학지원서,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평가)
6. 전월료 및 교육비
가. 전월료: 20,000원
* 전월료 수납방법
우리은행 계좌 (1005-401-105222 / 예금주: 한국외국어대학교)으로 무통장 입금 후 입학지원서 제출 시 입금표(복사본 가능) 함께 제출함 (반드시 본인 명의로 입금)
나. 교육비: 1,365,000원
다. 입학금: 50,000원

7. 제출서류 및 특전
* 본인 홈페이지 www.korean.ac.kr 참조
8. 기타
가. 접수 기간 중 접수시간은 09:00~17:00, 토, 일요일은 휴무
나. 합격 후 등록금 납부자 기준으로 15명 이하일 경우 수업이 폐강됩니다.
다. 서류제출은 직접 접수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보낼 곳: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 운영팀 (대학본부 4층 444호) 우 130-79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어문화교육원으로 문의 바람
☎ (02) 2173-2259, hrtiancai@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동부 유럽국가의 에너지 안보



송병준
국제협력전략센터
연구교수

최근 수개월간 유럽연합(the European Union, 이하 EU)에서 빈번하게 거론되는 이슈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계 주민의 분리 움직임과 더불어 셰일가스 개발 문제다. 표면상 우크라이나 사태와 셰일가스는 별개의 이슈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일부 EU 회원국에서는 아킬레스건인 러시아에 대한 과도한 에너지 의존문제가 공론화된다. 2009년 5월 EU-러시아 정상회담에서 메드베데프(Dmitry Anatolyevich Medvedev) 러시아 대통령은 EU는 러시아를 항상 적대적 시각으로 대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향적인 동반자 관계를 촉구했다.

그러나 많은 EU 회원국 지도자는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의존이 심화된 상태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양 측이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없다는 사고다. 한 발 더 나아가 반(反)러시아 정서가 팽배하나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의존이 심화된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EU의 에너지정책과 대치되는 셰일가스 개발을 적극 서두르고 있다.

2011년 기준, EU의 에너지 소비비율을 100%로 환산하면 석유 35.2%, 천연가스 23.4%, 화석연료 16.8% 그리고 기타(원자력, 재생 및 비재생에너지) 24.6%이다. 주목할 점은 최근 20여년 간 EU의 에너지 수요추이는 석유와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의 사용 감소와 이러한 감소분에 상응한 천연가스 소비의 증가이다. EU에서는 2003년 온실가스 거래지침(Directive 2003/87/EC)의 제정으로 탄소거래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석유 및 석탄에 비해 상대적으로 청정에너지라 할 수 있는 천연가스 수요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여기서 EU의 에너지 안보문제가 발생한 다. EU 국가가 아닌 노르웨이를 포함해 EU의 천연가스 자급률은 67%에 불과하다. 향후 수요증가를 고려하면 천연가스의 역내 생산 비율은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문제는 역외 수입 천연가스의 30%는 러시아에서 도입된다는 사실이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몇몇 EU 회원국의 러시아에 대한 과도한 천연가스 의

존이다. 대부분의 중동부 및 북유럽 국가에서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 비율은 50%를 상회한다. 특히 발트 3국(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과 불가리아는 러시아산 천연가스 비율이 100%이다. 스웨덴과 핀란드 역시 국내소비 천연가스의 100%를 러시아로부터 도입한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은 러시아와 원만한 관계 유지를 꾀할 수밖에 없다. 발트 3국은 러시아로부터 독립 직후인 1992년 에너지 공급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북유럽 국가들과 연합해 발트해국가이사회(Council of the Baltic Sea States)를 결성했다. 발트해국가이사회는 발트 3국 이외에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폴란드, 독일 등 EU 8개국과 러시아, 노르웨이 및 아이슬란드 등 총 11개 국가로 구성됐다. 이 이사회 내 EU 회원국의 공통점은 덴마크를 제외하고 모두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 의존이 높은 국가들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본 이사회에서 유럽국가들의 주요한 관심은 러시아와 원만한 관계유지를 통한 안정적 에너지 확보다.

그러나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는 특별히 발트 3국을 비롯한 중동부 유럽국가에게 에너지 종속은 국내에서 정치적 불안을 초래하고 국제관계에서는 정치적 자율성을 제약한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줬다. 해결책은 에너지 자립이며 그 단초는 자국 내 매장 확인된 셰일가스의 개발이다. 문제는 셰일가스 채굴에 대한 EU의 부정적 견해다. EU는 셰일가스 생산을 통한 경제적 이익은 토양오염 및 메탄가스 발생 등 환경적 위험으로 야기될 비용보다 높지 않다는 입장이다. EU는 또한 셰일가스 개발로 에너지 가격하락이 예기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확증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내세워 회원국의 독단적인 셰일가스 개발에 제동을 걸고 있다.

2014년 2월 유럽의회의 환경상임위원회는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등 셰일가스 채굴에 적극적 입장을 취하는 회원국을 겨냥해 셰일가스 채굴시 적용할 새로운 환경영향평가 법안을 통과시켰다. 본 법안의 목적은 EU 차원에서 엄격한 환경기준을 들어 회원국의 무분별한 셰일가스 개발을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EU는 미국으로부터 셰일가스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근 개최된 EU-미국 정상회담에서 바로소(José Manuel Barroso) 유럽위원회 위원장이 러시아의 천연가스 통

제를 들어 국제시장에서 미국의 셰일가스 판매는 21세기의 마샬플랜으로 전세계에 축복이라는 발언은 이러한 EU의 정책목표를 보여준다.

그러나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 의존을 탈피하려는 폴란드와 리투아니아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최근 수개월 사이 EU의 정책에 반기를 들며 자국 내 매장된 셰일가스의 적극적 개발을 표명하고 있다. 폴란드의 경우 전력생산을 위한 화력발전 에너지의 95%를 석탄에 의존해 EU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대응해 셰일가스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에 따라 폴란드 정부는 2007년 이후 다국적 에너지 기업인 엑손모빌(Exxon Mobil)과 탈리스만(Talisman Energy) 등에게 100여건이 넘는 셰일가스 채굴 허가를 내주었다.

리투아니아 역시 이웃 폴란드의 적극적인 셰일가스 개발정책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자극받아 정부차원에서 셰일가스 개발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리투아니아는 EU 내에서도 반(反)러시아 정서가 가장 강한 국가이다. 리투아니아는 매 해 두 번의 독립기념일이 있는데 각각 제정러시아 및 구소련으로부터의 독립이다. 여기에 천연가스는 물론이고 전력마저 100%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며, 러시아계 인구 비율이 6%를 점하는 리투아니아는 자국이 제 2의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이러한 우려는 셰일가스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리투아니아 부트케비추스(Algirdas Butkevicius) 총리는 정부차원에서 셰일가스 생산을 위한 필요한 입법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정부차원에서도 셰일가스 채굴을 염두해 환경영향평가 수정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결국 우크라이나 사태는 일부 중동유럽 EU 회원국에서 반(反)러시아 정서를 자극해 셰일가스 개발 불을 야기했다. 유럽통합이 심화됐지만 에너지정책은 기본적으로 회원국의 주권영역으로 EU의 개입은 제약된다. 다만 EU는 회원국의 무분별한 셰일가스 개발의 경우 환경 및 공공보전 관련 규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어한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는 일부 국가에서 사활적 국가이익 앞에서 무기력하다. 이와 같이 우크라이나 사태는 유럽통합과 국가이익의 갈등, EU 회원국의 러시아에 대한 시각 및 EU 에너지정책의 취약성 등 유럽정치의 여러 단면을 보여준다.

외대인이 만난 세계

가깝고도 먼 애증의 나라, 일본



▲유학 중 문화체험에 참가해 일본 전통의상을 입고 있는 도예진 양(왼쪽).

2013년 1학기에 7+1제도로 일본 유학을 다녀왔다. 일본에 도착했을 때, 내가 살게 될 아파트의 관리인이 역까지 마중을 나왔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내가 한국인이라고 말하자 그 분은 “박빙이나 비스트 엄청 좋아하는데! 소녀시대도 유명해요!”라고 말했다. 아마 이 말을 유학 생활을 하는 8개월 내내 가장 많이 들었을 것이다.

내가 만난 일본 친구들은 “나는 K-POP이 매우 좋아”,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어를 말할 줄 아는 사람은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라며 다가왔다. 일본 학생들에게 K-POP으로 시작한 한류열풍 덕분에 한국에 대한 좋은 인식이 심어져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날 민감할 수 있지만 일본인 친구에게 “야스쿠니 신사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했다. 평소 장난스러웠던 친구가 진지하게 나름대로 의견을 말했다. ‘일본이 전쟁의 전범이라는 것을 알고 충분히 반성을 해야 할 문제다. 하지만 전쟁에 희생당한 군인들도 누군가의 가족이었으며, 국민으로서 그들을 추모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 나라의 대표자로서 아베 총리가 공식으로 한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었다.

이것이 일본인 전체의 생각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한일 간 역사에 대한 관심이 일본 내에서 조금은 높아진 것 같았다. 또 일본에도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됐다.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심리적으로 혹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해 멀게 느껴지는 애증의 나라다. 내가 만났던 일본인들은 아이돌 가수를 좋아하고 미래에 대해 고민하며,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배우는 젊은이였다. 처음에는 단지 언어를 배우러 간다고 여겼지만 그 곳에서 내가 미처 생각해볼 수 없었던 시각에서 다른 생각을 하는 친구들을 만나 함께 공부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다양한 생각을 배우고 돌아왔다.

도예진 (경상 · 경영정보 09)

운동흥

임수진 기자

우리는 모두 원숭이다

‘우리는 모두 원숭이다(We Are All Monkeys.)’. 바나나를 든 사진과 함께 유명 축구선수들의 트위터에 게시된 문구다. 최근 이 사진과 문구를 포함한 새로운 반(反)인종차별주의 캠페인이 펼쳐져 눈길을 끌고 있다. 시작은 지난 4월 28일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인 프리메라리가가 바르셀로나와 비야레알의 경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코너킥을 차기 위해 코너플래그에서 있던 브라질 출신의 바르셀로나 선수 다니 알베스 앞에 바나나가 떨어졌다. 비야레알을 응원하던 한 관중이 그에게 바나나를 던진 것이었다. 이는 유럽에서 유색인종 선수를 비하하는 인종차별 행위의 일종으로 통용된다. 경기 중에 난데없이 인종차별을 당한 셈이다.

갑자기 당한 모욕에 이성을 잃을 수도 있었지만 다니 알베스는 인종차별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생각해둔 계획을 실행했다. 바나나를 주워들어 껍질을 깐 후 먹어버린 것이다. 그는 바나나를 입에 넣은 채 공을 찾고, 2대 1로 뒤지고 있던 그의 소속팀은 3:2로 대역전극을 펼쳤다.



▲여러차례 인종차별을 겪었던 마리오 발로텔라(AC 밀란)가 바나나를 먹고 있는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려 바나나 캠페인에 동참했다.

경기 이후, 다니 알베스에게 바나나를 던졌던 관중은 스페인 경찰에 체포됐고, 평생 비야레알의 경기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됐다. 비야레알도 관중의 인종차별 행위에 대한 구단 책임을 물어 벌금 1만 2천 유로(한화 약 1천 7백만 원)을 내게 됐다.

바나나 효과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경기 후 다니 알베스와 같은 브라질 출신인 바르셀로나 선수 네이마르가 바나나를 들고 찍은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자, 필리페 쿠티뉴와 루이스 수아레스(리버풀) 등 인기 축구 스타들도 줄줄이 ‘바나나 사진’을 게시했다.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가 자국 축구대표팀 감독을 만난 자리에서 바나나를 나눠먹은 데 이어 제프 블래터 FIFA 회장이 “모든 종류의 차별을 없애겠다”고 선언해 일명 ‘바나나 캠페인’에 동참했다.

인종차별을 뜻했던 바나나가 또 하나의 반(反)인종차별주의 아이콘이 됐다. 그러나 바나나 캠페인이 어지고 있던 중 지난 12일 이탈리아 세리에A 경기에서 또 흑인 선수에게 바나나가 던져졌다. 언제까지 축구장에 바나나가 던져질까. 이제 그 바나나를 먹어치워버릴 시간이다.

어깨너머 듣는 교양

이난야(교양학부, 동양명작의 이해 과목 감사)

문학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문학의 현장성과 역동성 모색

문학은 인간정신을 탐구하는 진지한 학문이며 역동적인 예술행위기도 하다. 그러나 기존의 대학 강의는 대부분 작품에 내포된 역동성과 현장성을 간과해 작품 자체에 대한 해석과 분석으로 고착시켰다. 더불어 우리 시대의 문학교육은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부합하는 학습 자료의 개발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기에 수강생들의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으며, 텍스트만을 주입해 통합적 해석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지금까지 한정되고 있었던 문학적 관습을 확장시키려면 고정화되고 관습화된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문학의 역동성과 현장성을 강조해 문학을 ‘개인적인 독서체험에서 집단적인 활동체험’으로 변화시키고, ‘문학작품을 문화 산업에 적용시키는 작업도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끊임없는 재해석과 창조활동이 이뤄지는 역동적인 예술행위인 문학의 본질을 문화콘텐츠 개발로 복원하고, 텍스트의 생명력을 되살려 교육학습현장에 접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동양명작의 이해>는 문학교육 현장의 수동적인 학습 방식을 극복하고 심도 있는 문학작품 이해를 유도해 창조적인 문학 활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예컨대 문학의 유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문학을 기점으로 한 새로운 장르로의 확장이 절실하다고 사료해 ‘읽는 문학’에서 ‘보는 문학’으로의 접목을 시도하고자 문학 답사 콘텐츠 개발 사례를 집중적으로 학습하고 있다. 문학 공간 학습은 문학작품의 현장성과 역동성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분야이기에 작품의 공간이 되는 장소를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답사 및 문학기행 등은 문학의 활성화와 대중화 측면에서도 지극히 중요하다. 작가가 설정한 공간과 실제 현실 속의 공간을 대비해가며 그 흔적을 쫓아간다면 작품에 대한 이해를 훨씬 높이고 작가와의 소통을 할 수 있다.

문학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단순히 작품의 배경과 줄거리를 파악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문학의 이해와 개인의 윤리적 실천과 관련된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는 풍부한 지식 배경과 다양한 관점을 함양시켜줄 수 있는 교양교육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본 강의를 통해 문학 텍스트가 어떻게 문화콘텐츠로 활용됐는지를 학습하며 창의성, 예술적 감각을 배양하는 인문학적 자질, 더 나아가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융합형 인재를 기를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글로벌배움터 운동시설 열악...

“‘떠돌이’ 신세, 이제는 그만 하고 싶다”

글로벌배움터에 신본관 건설로 대운동장이 폐쇄돼 학생들은 약 2년간 다른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시설을 대관하며 ‘떠돌이’ 운동을 해왔다. 사라진 대운동장을 대신해 어문학관 옆에 위치한 소운동장이 있었지만 말 그대로 ‘소’운동장에 불과했다. 비가 온 다음 날이면 학생들은 울퉁불퉁한 바닥에서 고인 물을 피해가며 뛰다가 넘어지는 등 시설은 너무나 열악하다.

다음 학기 신본관 앞에 인조잔디가 깔린 새 운동장이 생기지만 그 규격은 기존의 절반 수준이다. 등록금을 낸 ‘우리학교’에서 ‘우리학생’들은 왜 제대로 된 운동을 할 수 없는 것일까. 체육 분과 동아리들의 하소연이 빚발치는 우리학교 운동시설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어떤 상태인지 알아봤다.

◆ 바닥훼손 정도가 심해... 학생들 다칠 우려

글로벌배움터의 전체 부지는 2,221,857m²로 82,291m²인 서울배움터에 비해 두 배가 훌쩍 넘는 규모다. 하지만 전체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피트니스센터는 커녕 운동장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다. 6월에 준공돼 2학기부터 개관할 신본관 앞 운동장 부지는 가로 90m, 세로 45m이다. 이는 2012년 10월까지 존재했던 대운동장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현재 소운동장의 규격 역시 가로 65.9m, 세로 38.8m로 신본관 앞 새 운동장의 크기와 비슷하다.

그러나 글로벌배움터 운동시설의 문제는 단순히 좁은 운동장에서 끝나지 않는다. 먼저 글로벌배움터에는 학생회관 옆, 자연과학대 앞, 구(舊) 기숙사 옆 총 세 곳에 농구장이 위치해 있다. 하지만 이 세 곳 모두 농구장 표준규격인 가로 28m, 세로 15m를 충족하지 못한다. 심지어 구 기숙사 옆 농구장의 경우 바닥의 페인트 칠이 벗겨나가는 등 훼손 정도가 심해 넘어지면 큰 부상이 우려된다. 또 이는 농구공을 망가뜨릴 수 있다.

현재 소운동장은 대운동장이 폐쇄된 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시설이다. 하지만 배수시설의 기능이 원활하지 않아 비가 온 후에는 체육활동이 불가능 정도로 흠이 파이고, 빗물이 많이 고인다. 더 불어 축구공대의 그물망은 모두 뜯겨있고 운동장 가장자리 배수로 시설 위를 덮는 그레이팅이 없어 자칫 발을 잘못 디디면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다.

이에 많은 학생들이 글로벌배움터에서 도보로 약 30분,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위치한 용인시 체육회가 관리하는 인조잔디 운동장 모현 레스피아를 찾고 있다. 그러나 모현 레스피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비용은 2시간에 4~5만원, 체육경기 이외의 행사에는 2시간에 15~20만원, 하루 종일 이용 시 40~50만원이다.

실제 2013년 왕산체전은 대운동장의 부재로 레스피아에서 단 3일간 이뤄졌고 총학생회의 요청으로 학생감동팀이 지원한 예산은 약 80만원 정도에 그쳤다. 뿐만 아니라 축구, 농구, 야구경기를 제대로 진행할 변변한 운동장이 없어 학생들은 레스피아를 포함해 인근 중학교나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 발생하는 어마어마한 비용은 모두 학생들 몫이다.

좁은 운동장으로
교양수업 진행에 차질...
학생들의 불만 빚발쳐

◆ 실제 운동시설 사용자들의 반응은?

겉보기에도 좋지 않은 운동시설을 실제로 사용하는 체육관련 교양 교수나 학생들은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 들어봤다. 현재 우리학교 양 배움터에서 야구 수업을 맡고 있는 안종후 교수는 협소한 운동장에서 수업을 진행하다 최근 어이없는 일을 겪었다. 수업 진행을 위해 학생에게 수업시간 동안은 운동장 사용을 자제해 달라 부탁했지만 되레 “무슨 상



△ 어문학관 옆 소운동장

▶ 골대의 그물망이 다 망가지고, 운동기구의 위치 역시 제멋대로다.



△ 학생회관 옆 농구장



▶ 기숙사 옆 농구장은 시멘트 위에 그대로 칠을 해 만들어 졌다. 농구에는 매우 부적절한 땅일 뿐만 아니라 풍화작용으로 칠이 벗겨져 한눈에도 학생들이 넘어지면 바로 다칠 법하다. 또한 사진과 같이 테니스코트의 쇠받침대가 넘어져 나뒹굴고 있어 치명 큰 사고가 우려된다.



△ 기숙사 옆 운동공간

▶ 현재 체육 기지재 실 옆에 위치한 탁구장이다. 환기가 제대로 잘 되지 않는 실내이며, 이리저리 뛰어다녀야 할 공간은 경기를 하기에 매우 비좁아 보인다.



△ 기숙사 옆 체육 기지재실 및 탁구장

◀ 비 온 뒤, 땅이 고르지 못해 물이 고이고 물길에 생겼다. 현재 글로벌배움터 소운동장은 운동장 가장자리의 배수시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생긴 빈 공간때문에 학생들이 발이 빠져 다칠 우려가 있다.



△ 어문학관 옆 소운동장

◀ 수해로 훼손된 우레탄 바닥은 부분적으로 복구가 이뤄졌다. 하지만 평평해야 할 바닥에 볼록한 공기층이 생겨 농구공이 제대로 튀지 않는 경우도 있다.

관이나”며 심한 욕을 들었다.

야구장의 표준 규격은 투수판에서 홈플레이트의 거리가 18.44m, 홈플레이트에서 1루베이스의 거리가 27.44m이다. 투수판만 10m 이상의 공간이 확보돼야 하지만 수업을 진행하는 소운동장의 규격은 이에 한참 모자란다. 따라서 전체 경기는 고사하고 부분적인 수업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5월에는 학교 측에 야외수업을 요청해 야외구장을 지원 받았지만 이마저도 수업 중 일부에 그친다. 안 교수는 “신본관 앞 운동장이 생기더라도 야구수업에는 턱 없이 협소한 공간”이라며 “넓은 운동장 없이 수업을 진행하러니 어려움이 많다”고 전했다.

또 축구 동아리 헤르메스 역시 ‘대운동장의 부재로 누구보다 큰 피해를 입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헤르메스는 대운동장이 없어진 후 소운동장이나 모현 레스피아에서 경기를 진행한다. 하지만 소운동장은 학생들의 이용이 몰려 예약이 폭주하고, 레스피아를 이용하기에는 사비를 들여야 한다.

김진산(자연·생명공학 10) 헤르메스 회장은 “소운동장의 축구골대는 그물이 다 찢기고, 낮은 펜스로 공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특히 바로 옆이 계곡이라 공이 넘어갈 경우 경기재개에 더욱 어려움이 많다”고 전했다. 그는 신본관 앞 마련될 새 운동장의 규격을 듣자 “11:11 정식 경기를 진행하기는 힘들겠다”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농구 동아리 피버스 역시 열악한 농구코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피버스는 학생회관 옆 농구코트에서 연습하며 직접 관리하기까지 한다. 하지만 점수판, 골대그물망, 농구공 약스 등 기본적인 관리를 하기에 교비는 한참 부족하다. 그럼에도 피버스 학생들은 학교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해 관리비용에 사비를 지출하고 있다. 심지어 인근 중학교를 대관해 연습하기도 한다.

이우석(통번역·영어 11) 피버스 회장은 “대학교 체육시설이 중학교보다 못하다는 사실에 화가 난다”며 “학생회관 농구코트는 우레탄 수준이 나빠 평평하지 못하다. 4만원이나 하는 공에 손상이 갈까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신본관 앞 운동장 생기나
많은 학생,
새로운 운동장 필요해...

◆ 학생들은 더 넓은 부지를 원해... 그 대안은 용인 영어마을부지?

신본관 앞 운동장이 새로 생길 예정이나 학생들은 더 넓은 운동장을 원하고 있었다. 12~15일 3일간 글로벌배움터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총 응답자 402명 중 78%(312명)의 학생들이 ‘새로운 운동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그 중 52%(173명)의 학생은 ‘구(舊) 용인 영어마을 부지(정문 앞 철제 바리케이드)’를 새로운 운동장 후보 1순위로 꼽았다.

기타 의견으로 23명의 학생이 ‘신 기숙사 앞’을 제시하기도 했다. 반면 ‘만들 필요가 없다’고 대답한 98명의 학생 중 35%는 ‘운동장 보다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이 낫다’고, 27%의 학생은 ‘나와는 크게 상관없어서’라고 답했다.

이에 송주환 기획건설팀장은 “용인영어마을 부지는 60,486m² 정도로 꽤 넓다”며 “예산만 배정된다면 당장이라도 개발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토목공사는 보통 10~20억 이상의 비용이 들기에 결정하기 쉬운 공사는 아니”라며 “아직 예정된 공사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바리케이드로 가워진 땅, 구 용인 영어마을 부지가 운동시설로 새롭게 탄생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소영 기자 87artist@hufs.ac.kr



국제사회의 문제아인가 미국중심질서의 피해자인가 저항과 반란의 역사를 지닌 이란의 진짜 얼굴

유달승 교수가 말하는 이란과 그를 둘러싼 국제관계

지난 해 11월 이란과 미국의 핵협상이 타결되며 10년 넘게 지속된 이란 핵문제가 해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란이 1979년 미 대사관 인질사건을 시작으로 핵개발문제까지 30년 넘게 미국과 대립해왔던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낮은 모습이다. 그동안 '이란'하면 흔히 떠오르는 이미지는 테러, 반미, 핵개발 등 부정적인 것이 대다수였다. 과연 이제껏 우리가 본 이란의 모습이 그들의 참모습인지 유달승 교수를 통해 들어봤다.

석유가 넘치는 이란, 굳이 핵에너지를 개발하려는 이유는?

이란 핵문제는 2002년 8월 반(反)체제단체인 이란국민저항위원회가 이란의 핵개발 의혹을 제기하며 국제 이슈로 등장했다. 유달승 교수는 다른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이란 핵문제의 본질을 분석했다. 유 교수는 먼저 "이란은 북한과 달리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한 적이 없으며, 현재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이란의 핵개발을 북한과 비교했다. 또한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한 반면 이란은 가입한 상태로 기본적인 조항을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이란이 굳이 핵에너지를 개발하려는 의도가 순수하지만은 않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서방세계는 이란이 핵에너지를 개발해 고농축 우라늄을 축적하면 결국 핵무기를 개발할 것이라 지적했다. 이란 핵 개발의 이유는 그들의 주변 국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유 교수는 이란과 인접한 인도, 파키스탄과 적대국가인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핵개발 이유라 설명했다. 그는 "인접 국가들은 물론 적대국가도 핵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 국가와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군사적인 충돌을 고려할 때 이란은 핵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말했다.

유독 문제시되는 이란의 핵개발

북한 못지않게 핵문제를 일으키는 나라로 유독 이란이 각종매체에 자주 등장한다. 유 교수는 국제사회의 이중 잣대를 지적하며 특히 이란의 핵개발이 국제사회의 큰 논쟁거리가 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은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지 않았고 핵무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압력과 제재를 전혀 받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왜 이란은 핵에너지를 개발하려는 것만으로도 서방세계의 끊임없는 견제와 갈등의 대상이 되었는가? 유 교수에 따르면 이란을 문제로 삼는 국제사회의 기준은 핵개발 유무나 핵무기보유 여부가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와의 적대적인 관계여부다. 지난 30년간 이란은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있었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 달리 핵개발의혹만으로도 엄청난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이다. 유 교수는 "왜 이란이 이

렇게 국제사회의 문제아로 취급받고 그들만이 의혹의 대상이 되는지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의 문제아 이란, 역설적으로는 전략국가

그렇다면 핵개발 이전부터 30년간 미국과 대립하며 이란이 국제사회의 문제아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유 교수는 "분쟁지역은 역설적으로 전략지역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란은 중동의 그 어떤 나라보다도 중요한 위치였기 때문에 핵문제가 불거지기 이전부터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는 이란을 좌시하지 않았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란은 석유 매장량 세계 3위,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2위의 거대 에너지 자원국이다. 또한 세계 원유 매장량의 3분의 2가 존재하는 페르시아 만과 매장량의 5분의 1이 있는 카스피 해 지역을 육로로 연결하는 유일한 나라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세계 에너지의 생명선이라 불리는 호르무즈 해협도 이란의 손아귀에 있다. 이 해협은 중동지역의 원유를 나르는 유조선이 지나가는 길목이다. 이렇게 중요한 요충지에 위치한 이란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핵문제가 부각되기 전부터 국제사회의 중심에 있었다. 유 교수는 "실제로 이란은 미국이나 서방세계가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면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훈련을 하며 이 해협을 봉쇄하려는 의도를 드러낸다"며 "이 곳이 봉쇄될 경우 세계 석유 시장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가 그 어느 나라의 문제보다도 이란문제에 민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동을 이끈 이란의 역사는 저항과 반란의 역사

유 교수는 이란의 역사를 '저항과 반란의 역사'라고 정의하며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와 대립해온 또 다른 원인을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이란은 이슬람 이전에 조로아스터라는 종교를 믿는 국가였다. 이 종교에서는 세계를 선의 세계와 악의 세계로 구분한다. 더불어 각 세계는 신이 있으며 인간은 선한 신을 도와 악의 신을 물리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돕는다는 것은 정치참여를 말한다.

실제로 이란의 역사에서 폭군과 전제군주에 맞선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 이란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은 모두 이처럼 저항과 반란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20세기 초반 이란은 중동최초의 입헌군주제 혁명을 일으키며 중동국가의 근대화를 주도했다. 또한 1951년에 최초로 석유국유화 법안을 통과시켜 서방세계의 다국적 기업이 산유국의 이득을 독점하던 구조를 무너뜨렸다. 이 역시 중동 산유국들이 다국적 기업과 맺은 불평등 조약을 타개하는 계기가 됐다. 끝으로 이슬람적 전통으로의 회귀와 이슬람교리로 운영되는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이슬람주의운동도 마찬가지다. 이것도 근대화와 서구화에 대한 저항이었으며 그 당시 독재를 일삼던 왕조에 대한 반란이었다.

현재 이란은 조로아스터교의 교리를 일부 계승한 이슬람의 소수 종파인 시아파를 따른다. 그래서 이란의 역사는 여전히 저항과 반란의 특성을 지닌다. 유 교수는 이란이 기존의 체제와 질서를 무기력하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저항하고 반란했기 때문에 유독 중동에서 이란이 서방세계와 대립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중동지역의 요충지에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려다보니 이란과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란 테헤란거리에 그려진 반미(反美)를 상징하는 벽화이다. 미국에게 죽음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10년 넘게 지속된 핵문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다

최근 10년간 교착상태에 있던 이란과 미국의 갈등이 급변하고 있다. 지난 해 11월 25일 이란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및 독일 간 핵협상이 타결됐다. 이란은 지금까지 농축한 핵물질을 단계적으로 제거할 것을 약속했고 이란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인 제재는 한시적으로 해제됐다. 유 교수는 이를 국제 에너지 시장과 중동지역내부의 변화로 설명했다. 석유 중심의 에너지 시장은 셰일에너지라는 새로운 에너지 자원의 등장으로 큰 지각변동이 발생했다. 기존의 석유보다 저렴하게 에너지 자원을 추출할 수 있는 셰일에너지는 미국, 캐나다, 러시아, 아프리카, 중국 등지에 분포한다. 따라서 에너지 자원과 관련한 중동의 역할과 위상이 과거보다 감소하는 것이다. 또한 중동지역의 정치 중심이 이집트에서 페르시아 만으로 이동한 것도 한 원인이다. 유 교수는 "중동의 중재자 역할을 한 이집트 정세가 혼란스러워졌고 이에 따라 정치의 축이 페르시아만으로 이동했다"며 이에 "미국이 중동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동반자로 이란을 바라보게 된 것"이라 설명했다.

여기에 덧붙여 유 교수는 이란과 미국의 외교정책을 바탕으로 들어 핵협상타결을 설명했다. 오바마가 재집권하며 미국 외교정책의 중심지역은 중동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자 오바마 정권은 이란과의 핵협상을 선택한 것이다. 이란 정권도 중도파계열의 로하니 대통령이 당선되며 미국과의 핵협상에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유 교수는 "로하니 대통령이 임기 첫해에 실질적인 성과가 없다면 남은 임기동안 정권유지가 힘들긴 마찬가지"라며 "로하니와 오바마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라 덧붙였다.

핵협상 타결과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대한 전망

그렇다면 과연 핵협상은 완전한 타결을 이룰 것인가? 유 교수는 "오바마 정권이 외교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 이란과의 핵협상타결을 더욱 가속화 할 것"이라며 이를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또한 이란은 핵개발로 미국의 경제제재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이란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 국민들은 여기서 벗어나길 희망하고 있다. 이번 해 12월에 있을 최고지도자 임명권리가 있는 성직자를 선출하는 선거에도 이러한 국민여론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 교수는 "로하니 정권은 경제를 회복하고 선거에서도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1년 안에 핵협상을 통한 가시적인 성과를 얻으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협상이 타결된 이후 적대국가관계였던 이란과 미국이 외교적인 관계개선을 이뤄낼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 교수는 이란과 미국의 외교적 관계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핵협상 타결 이후 미국과 이란의 경제적인 교류가 점차 이뤄질 것이고 교역수가 증가 할수록 외교적 관계가 호전되는 것은 시간문제"라 말했다. 다만 이에 대한 가장 큰 걸림돌로 미 대사관 사건을 지적했다. 미국 정치권이 이란에 대해 냉소적인 이유는 이 사건 이후 일종의 '성역'이었던 미국의 공관이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의 공격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유 교수는 "성공적인 외교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선 이 사건에 대한 이란의 공식적인 사과와 같은 상징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란의 이미지와 미국과의 관계는 유동적

끝으로 유 교수는 국가 간의 관계는 이해관계에 따라 유동적인 것임을 강조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 국가 간의 관계는 항상 변화한다는 것이다. 이란도 처음부터 반미(反美)국가는 아니었다. 70년대 후반 이란은 페르시아 만의 현병, 중동의 경찰로 불렸다. 즉, 미국의 최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중동질서를 유지시키던 국가였다. 유 교수는 "이러한 측면에서 이란을 보는 우리만의 태도와 입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서구인에 비친 이란의 이미지를 통해 보기 보다는 우리의 시각으로 이란 문제를 봐야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란에 대해 보통 테러와 반미 이미지가 강하지만 이것도 유동적"이라며 "사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이란은 이러한 이미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예컨대 서울의 테헤란로는 이란 수도 테헤란 시와 서울간의 자매결연으로 생긴 것이다. 반면 이란에는 서울로, 한국광장, 서울공원이 존재한다. 유 교수는 "제 3세계에 우리나라 이름의 도로, 광장, 공원이 있는 것은 흔하지 않다"며 "그만큼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이란은 국제적 문제아나 테러국가가 아니며 외교적으로 중요하고 가까운 나라일 수 있다"고 말했다.

글 김태훈 기자 88question@hufs.ac.kr
사진 임수진 기자 87curious@hufs.ac.kr

유달승 교수의 주요 논문

"페르시아인 카펫과 이란 문화의 정체성 연구",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22권 3호, 2012.

"이란의 민주주의 연구: 이슬람과 서구식 민주주의의 결합을 중심으로", 『중동문제연구』 제11권 2호, 2012.

"The Philosopher-Prophet as the Ideal Ruler in the Political Thought of the Medieval Iran",

Theological-Philosophical Research, vol. 13 no. 3, 2012.

"이란의 군부엘리트와 부족주의의 관계 연구", 『중동연구』 제28권 3호, 2010.

"이란의 문화외교 연구: 이란과 시리아의 사례연구", 『국제문제연구』 제9권 3호, 2009.

미 대사관 인질사건 : 1979년 11월부터 1981년 1월까지 미국인 50여명이 이란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인질로 억류되어 있던 사건.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 비핵보유국이 새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과 보유국이 비보유국에 대하여 핵무기를 양여하는 것을 동시에 금지하는 조약.

셰일에너지 : 모래와 진흙이 쌓여 단단한 굳은 셰일층에서 개발·생산되는 원유 및 천연가스를 말한다.

최고지도자 : 종교법학자이자 국가 최고 통치권자로서 절대권력 행사. 군최고통수권, 군사령관 임명권, 대통령 인준 및 국정조정회의의 장·사법수장·헌법수호위원회위원 임명권과 대통령 해임권(국회가 재적 2/3찬성으로 대통령 불신임 시)을 가지고 있다. 임기는 종신직. 사망이나 직무이행 불능 시 국가지도자운영회의가 후임자를 선출한다.

뒷담하는 기자

취재 뒷이야기

최소영 기자

멋진 신세계



지난 주 과제를 위해 안산에 위치한 경기도미술관에 다녀왔다.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를 위한 추모분위기로 지하철역에 내려자마자 숙연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조용한 분위기 때문인지 아무 생각 없이 걷다 우연히 희생자 합동 분향소인 올림픽기념관 표지판이 눈에 들어와 발걸음을 돌렸다. 추모현장에 가는 길에 얼마 전 프랑스 외신이 보도한 세월호 참사현장에서 사망한 학생들을 그대로 담아낸 영상이 머리에 스치듯 지나갔다. 치킨집에서 친구와 맥주 한 잔하다 텔레비전에서 ‘세월호 침몰 전원 구조’라는 뉴스를 보며 ‘오, 다행이네’라 생각한 게 엊그제 같은데 그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이야 갑자기 온 몸에 솜털이 곤두섰다.

애초에 제대로 해결되지 못해 사람들의 입을 계속 오르내리는 세월호 참사를 보며 ‘왜 우리나라의 재해 안전 기술 수준이 아직 후진국에 머물고 있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더욱 비참했던 건 세월호 사건을 은폐하고 왜곡 보도를 하는 언론사들 때문이었다. 모든 언론사, 모든 기자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들로 인해 ‘학생기자’라는 신분이 부끄러웠고 훗날 ‘절대로 기자는 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까지 굳어졌다.

사건에는 언론을 ‘매체’를 통해 어떤 사실을 밝혀 알려거나 어떤 문제에 대해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이라고 기대 있다. 우리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곳 중 하나는 바로 언론이다. 그렇기에 언론의 보도는 자유롭고 진실만을 전달해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해야 한다. 대중에게 사실을 알리고 그들을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인 언론은 어느 상황에서나 공정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언론은 정치권의 개입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치권은 국민들이 사실을 알지 못하게 갖은 술수를 부린다. 암묵적인 사실이었지만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언론의 문제를 절실히 깨닫는 계기가 됐다.

한 달 동안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며 필자는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가 떠올랐다. 그가 책에서 묘사한 ‘디스토피아’가 우리사회에 도래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다. 다음은 ‘멋진 신세계’를 시작하는 글귀다.

유토피아는 지금까지 인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실현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들은 우리들을 불안하게 하는 문제를 앞에 마주 서있다. 어떻게 유토피아의 궁극적인 실현을 피할 것인가... 유토피아는 실현가능하다. 인간의 삶은 유토피아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러나 지식인과 교양인은 유토피아를 회피하며, 불안전하지만 자유로운 비유토피아적인 사회로 돌아가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생각할 것이다. 그러한 세기가 시작될 것이다.

-니콜라이 베르자예프



휴스토어(HUFStore)

외대학보와 함께 하는 중고장터, 휴스토어(HUFStore)

〈판매합니다〉

● Interpreting for International Conferences
(‘번역의 이론과 실제’ 교양책)/ 010-2644-0459

● 아렌트 정치의 존재이유는 자유다(홍원표, 한길출판사)
88lys@hufs.co.kr

● 코렉스 24인치 21단 기어자전거(상대종음, 5만원)
jin93@hanmail.net

● HUFStore에서는 본교 재학생(외국인 교환학생 포함), 교수, 직원들을 포함한 모든 외대 구성원들의 중고물품 판매, 구매, 교환, 무료나눔 광고를 받습니다.

● 외대학보 홈페이지에서 신청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88lys@hufs.ac.kr로 보내주세요.

● 매호 대략 10개 이내의 광고가 외대학보 지면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 거래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거래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 리더십(김재득, 대영문화사) 010-2644-0459

● 스탠드 raonjaena@naver.com

● 지구본 tbtb001@hanmail.net

● 보드 pointballoon@naver.com

● At HUFStore we accept advertisements for buying, selling, exchanging, and sharing of every kinds of second-hand goods or items from all HUFsans including students, foreign exchange students, staffs and professors.

● Please download and fill out the form on our Website and send it to 88lys@hufs.ac.kr

● Around 10 applications will be advertised at each issue in our newspaper, HUFStore corner.

● 외대학보(Oedaeahagbo) does not hold any legal responsibility in the transaction.

● Each trading party is responsible for all transactions.

일시
정지

도심 속 신록으로 물든 공원여행을!



계절의 여왕 5월이 돌아왔다. 푸르름이 짙어진 서울에는 연인, 친구, 가족과 함께 도시락을 싸서 나들이를 나온 이들이 많았다. 추억을 남기고 서울 도심 속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명소 같은 공간이다. 나무냄새, 풀냄새로 흠뻑을 견고 싶어지는 날, 정해진 이정표 대신 발길 닿는 곳으로 걸으며 봄햇살을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김다정 기자 88daisy@hufs.ac.kr

지나호를 말하다

서울배움터 독자위원 권대웅 (사회 · 미디어 07)

단순 정보전달이 가장 많아 아쉬워

“또한 한걸음 더 나아가 ‘전문성을 갖춘 저널리즘’을 추구합니다.” 외대학보 홈페이지 소개문에 적혀 있는 외대학보사가 규정한 자신의 역할이다. 다시 말해 사안에 대해 분석하고 해석해 독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저널리즘이 나아가야 할 방향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971호에서 이러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는지 의문이다.

1면과 2면에 걸쳐 게재된 개교 60주년 관련 기사들이 그 이유다. 이 면에 게재된 8건의 기사 중 7건이 60주년 기념식 관련된 글이거나 학교의 행정적 관련자들의 축하 메시지를 담았다. 개교 60주년을 축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 시기를 맞아 지난 6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학교의 정책을 분석해 설명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우리학교 6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획 기사를 시도하길 바란다. 예를 들어 지난 60년 동안 발생했고 주목할 만한 우리학교의 사건들을 조명하거나 우리학교의 이미지에 대해 타 학교 학생들의 생각, 혹은 학교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등을 기사로 게재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학생들이 유용하게 갈만한 장소나 학교 내 길거리 행사에 대한 정보도 같이

실으면 더 유용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한 학보는 교내에서 갈등이 벌어지면 이를 짚어보고 해결할 의무가 있다. 일반대학원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짚어볼 시간이다. 일반대학원에서 발생한 갈등에 대한 분석 기사를 다음호에서는 찾아보길 바라며 갈등이 조속히 해결돼 일반대학원생본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길 바란다. 학술이나 인터뷰면 기사는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만한 주제였다. 지난번 지적했던 광역화 모집에 대한 분석기사는 적절했다. 바라는 점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등록금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외대학보가 되길 바란다. 등록금 인상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비교할 수 있을지 모르나 독일의 대학은 등록금이 없다. 독일의 대학교육은 학생들의 기본권으로 간주돼 경제적 차이에 따른 기회의 박탈을 지양한다.

교육을 받기위해 대학을 선택했고 이를 위해 비용을 지불했다면 동시에 그 사용 현황에 대한 알 권리가 있다. 이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이 있는 것은 바로 학교의 교육과정을 점검하는 외대학보다.

지나호를 말하다

글로벌배움터 독자위원 주희진 (인문 · 언어인지 12)

우리학교를 위한 외대학보가 되길 기대하며

지난 호는 독자의 흥미를 끌만한 소재가 많았다. 하지만 우리학교 개교 60주년 기념식에 대한 내용과 60주년을 축하하는 글들이 1, 2면을 차지하면서 정작 기사에 해당하는 지면 수는 너무 적었다. 그래서 흥미롭고 내용도 풍부한 기사를 읽고 즐기기에 아쉬움이 많았다. 또한, 지난 호는 ‘개교 60주년 기념 학보’ 같은 느낌을 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면에서는 기사 제목과 내용이 맞지 않는 기사들이 많았다. 먼저, ‘결의 앞두고 사라진 학생들’ 기사는 전반적으로 정기학생총회의 내용, 총학생회와 학생들이 나눈 의견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이 기사의 제목에 해당하는 내용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제목을 ‘결의 앞두고 사라진 학생들’로 정했다면 정기학생총회 중에 학생들이 나가버려서 생긴 문제와 그에 대한 원인 등의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다뤄야 했다. 그리고 애초부터 정기학생총회 자체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고 싶었다면, 기사 제목을 기사의 소재목인 ‘지난 학기 이은 정총 성사는 실패’로 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다.

더불어 ‘4.19혁명 그날을 기억하자’ 기사의 경우, 주요 내용은 4.19 민주혁명동지회에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사의 제목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다. 오

히려 소재목인 ‘우리학교 4.19민주혁명동지회 주최 장학금수여식’을 제목으로 하고, ‘4.19혁명 그날을 기억하자’를 소재목으로 하는 것이 이 기사와 더 잘 어울린다. 또한 ‘세월호 그 후... 양 배움터 5월 행사 취소’기사는 세월호 침몰 사고를 추모하기 위해서 5월에 있는 행사들을 취소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기사 제목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기사의 내용이 드러나도록 표제를 ‘양 배움터 5월 행사 취소 세월호 사건을 추모하며’라는 식으로 쓰는 것이 더 낫다.

4면의 기사는 한 면을 차지할 만큼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하지만, 많은 정보들이 나열만 됐고, 정리가 부족한 인상을 준다. 그리고 해당 학과가 아닌 독자들이 이 기사를 읽었을 때, 동양어 대학과 서양어대학의 바뀐 교과과정을 이해하는 데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기사 중간에 두 학과의 홍보 이미지 사진을 넣는 것보다는 두 학과의 교과과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표로 제시하는 것이 독자들에게 기사를 읽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됐을 것이다. 또한, 기사의 소재목이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 이 기사에는 글이 많으므로 수많은 글자 속에서 소재목이 눈에 띄기 위해서는 좀 더 굵은 글씨로 혹은 눈에 띄는 색깔로 쓰는 등의 변화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국·부장 고정칼럼

김시곤 전 보도국장 ‘보도지침’ 발언, 결국은 돌고 도는 언론 장악

▲김시곤 KBS 전 보도국장은 세월호 참사 보도를 하는 KBS 앵커들에게 ‘검은 옷을 입지 말라’는 지시와 세월호 침몰과 교통사고를 비교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사 결국 사퇴했다.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 측은 김 전 국장이 “세월호 침몰로 사망한 300명은 한꺼번에 죽어서 그렇지 연간 교통사고로 사망한 수와 비교하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 발언했다고 전한 바 있다.

▲이에 김 전 국장은 9일 기자회견을 통해 본격 사퇴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김 전 국장은 KBS 세월호 관련 보도와 본인의 사퇴에는 ‘청와대의 개입’이 있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보도 중 ‘해경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발언했다. 뿐만 아니라 김환영 KBS 사장이 자신을 불러 ‘사퇴하라, 이것이 청와대의 뜻이며 이를 어길 경우 자신의 자리도 위협’이라 말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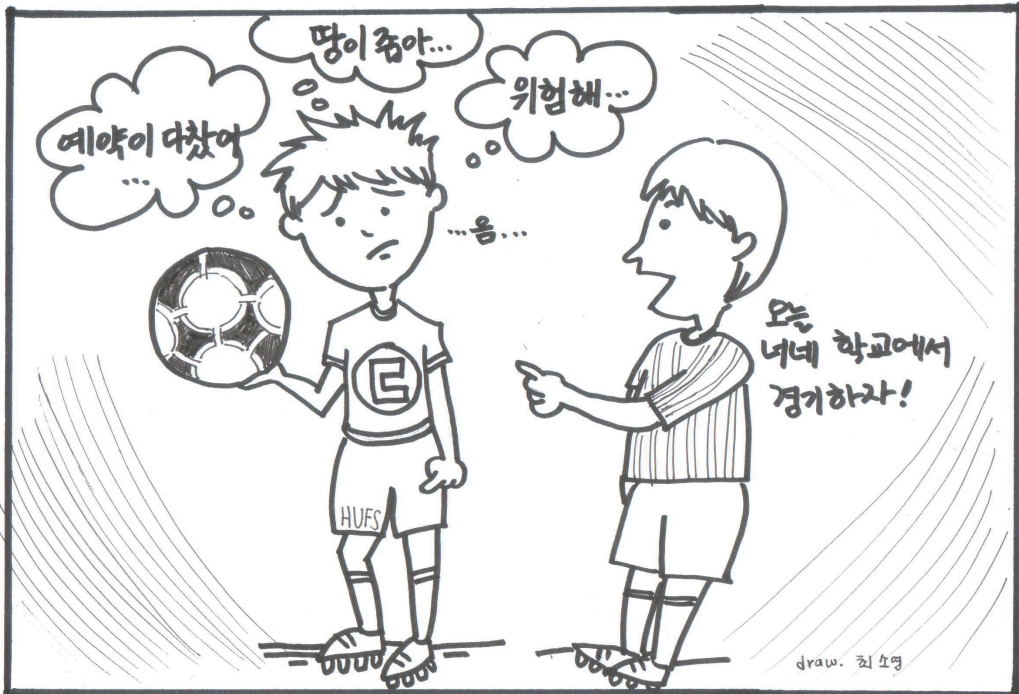
▲사태는 더욱 번졌다. 16일 KBS 보도본부 부장 18명이 모두 사퇴하고 나섰다. 이들은 김 사장에 대해 ‘정권과 적극적으로 유착해 KBS의 저널리즘을 망쳤다’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보도본부 부장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김 전 보도국장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이었다. ‘사장의 지시를 받아 직접적으로 보도를 굴절시킨 책임은 김 전 국장에게 있고 충실한 파트너에서 일이 틀어지자 폭로한 것 뿐’이라며 성명서에 밝혔다.

▲그간 눈 하나 깜짝 않던 김 사장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청와대 앞으로 몰려가자 그제야 유가족 앞에 무릎을 꿇었다. 더불어 해경 비판 보도 자제 역시 마찬가지다. 이는 청와대를 비호하는 것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청와대가 직접적인 비판받는 것을 김 사장이 먼저 나서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지 않은가. 결국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언론이 앞장서 두둔하고 나선 것이다.

▲그렇다면 이에 청와대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 청와대는 결국 이번에도 ‘나 몰라라’ 침묵만 지킨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해 3월 대국민담화를 통해 “일부에서 주장한 방송 장악은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보장한 적도 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필자에게는 이번 사태가 낯설지 않다. 이는 지난 1985년 ‘보도지침’, 30여 년 전부터 지금껏 내재돼온 상황이 이번 사태로 드러난 것뿐이다. 시간을 뛰어넘은 반복, 대학언론이든 공영방송이든 규모에 관계없는 반복이다. 부디 이번 사태를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언론계의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진정 ‘언론자유’를 실현할 수 있길 고대해본다. 앞으로 믿고 볼 수 있는 뉴스가 존재하길 바란다.

만 평



사설

오늘 휴지를 줍는다

공공예절 캠페인이 심심찮게 방송을 타고 있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양보를 하자’ 등의 내용이다. 분명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왜 관심이 가는 걸까? 20년도 훨씬 지난 초등학교 시절 낡은 교실이 떠오른다. 칠판 한 구석에는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 ‘인사를 잘 하자’와 같은 주훈이 서툰 글씨로 쓰여 있었다. 매주 학급회의에서 실천해야 할 주제를 정하고 칠판에 써 놓았던 것이다.

그때는 유치해 보였다. 하지만 초등학교 칠판에 쓰여 있던 주훈이, 학문적 이론으로 가득 채워져야 할 대학의 칠판에 써 놓아야 할 문구라는 쓸쓸한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본관 앞 중앙 광장에는 쓰레기가 넘쳐나고, 강의가 끝난 강의실에는 음료수 캔과 종이컵이 여기저기 널려 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 누구를 나무라거나 화 낼 일도 아니다. 기본을 철저히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좋은 것을 마시는 방법만 가르쳤지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는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거 중국의 복숭아시절 왕안석이라는 뛰어난 문장가가 있었다. 어느 날 그가 원고를 쓰다 집을 비운 사이 소동파가 찾아왔다. 주인 없는 원고를 뒤적이던 소동파의 눈에 한 시구가 들어왔다. ‘가을 깊이 서풍 불어오니 국화꽃은 떨어져 황금들을 이루네’였다. 소동파는 시 끝에 ‘국화는 가을이 돼도 꽃잎이 떨어지지 않는 법인데 서풍에 국화꽃이 진다고 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를 모르는 것’이라는 글귀를 남겼다.

몇 달이 지나 소동파는 외진 성곽으로 발령받았다. 그는 관리임용을 담당할 왕안석의 시를 흠평한 대가라고 생각하며 원망의 나날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국화의 꽃잎이 떨어져 뜰에 가득 날리고 있었다. 동파는 그제야 깨달았다. 같은 국화라도 장소에 따라 잎이 달라붙기도, 지기도 한다는 것을. 왕안석이 자신을 여기에 보낸 것은 과묵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 여기서 말없이 더 큰 가르침을 주었다는 데서 ‘교이불어(敎誨不漁)’라는 말도 생겼다.

쓰레기가 널려 있다고 해서 교육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율이라는 이유로 기본예절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오늘, 강의실 계단을 내려오며 흩어진 휴지를 줍는다.

자치회비 비율 조정, 의도는 좋으나 태도는 성찰해야

지난 학기 조봉현(사법·영교 09) 전(前)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장은 ‘다음 학기에 자치회비의 비율 조정을 의결할 것을 의결한다’며 다음 총학생회장 당선자인 김범(국제 11) 총학생회장에게 바통을 넘겼다. 이에 지난 8일 정기총회에 ‘자치회비 비율조정’이 안건으로 올랐다.

정기총회 안건지를 참고하면 각 단위의 학생회와 학생복지위원회, 동아리연합회 등 학생자치기구와 자치언론기구인 교지편집위원회(이하 교지)까지 모든 자치기구의 자치회비 배당 비율과 조정해야 하는 이유 등이 입장별로 제시돼있었다.

단위의 규모에 맞게 자치회비를 조정해 보다 큰 규모의 자치기구의 사업 진행을 원활하게 하고 무분별하게 새나가는 자치회비를 없앤다는 것은 분명 좋은 의도이고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점이다.

하지만 여기서, 앞으로 있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참가해 대표자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살펴볼길 바란다. 이번 비율 조정을 기회로 삼아 한 톨이라도 더 받아내려는 대표자들의 알량한 의도는 의미있는 목적을 퇴색시키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이번 자치회비 비율조정에는 ‘학내언론의 존폐위기’까지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내재됐다. 우리학교 유일 학생자치언론기구인 교지의 자치회비가 빼앗길(?) 위기에 놓인 것이다. 지난 정기총회에서 김범 총학생회장은 “존폐 위협까지는 절대 번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으나 현재 발행하기에도 빠듯한 교지의 1년 예산인 7천만 원을 두고 벌이는 학생회들의 각축전이 한창이다.

교지가 중앙운영위원회에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도 참석하지 않는다는 점을 빌미로 ‘자치회비 납부금 중 삼천 원이 교지대로 빠지는 것은 그 영향성에 비해 너무 큰 비중이다’라며 눈독을 들이고 있다. 여기서 ‘영향성’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따져보자. ‘교지의 영향성이 의심된다’는 ‘교지를 내든 안내든 학생들은 무관심하고 영향을 끼치는 일이 없다’는 것이고, 결국 이는 ‘교지의 규모가 줄어들거나 심지어 없어져도 아무 일없다’는 것으로 확대해 해석할 여지가 있다.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라며 자치공간 회수와 마련을 주장하던 이번 서울배움터 총학생회는 자기 손으로 학생자치활동인 ‘교지’의 목을 조이고 있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부디 사리사욕을 배재하고 투명한 과정으로 이번 자치회비 비율조정을 뜻있게 추진할 수 있길 바란다.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구촌을 읽다(15매) / 외대인이 만난 세계(8매) / 어캐너며 듣는 교양(7매) / 직원의 말풍선(7매)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시는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와 기념품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facebook.com/newhufspress 편집장 신민지(통번역·태국어 11) 010-4002-0299, 86hufspress@hufs.ac.kr

외대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김인철

편집인 겸 주간 오종진

편집장 신민지

부장 이은결

제작 경보미디어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www.oedaeahagbo.com

facebook /newhufspress

언론 & Consulting

젊은이물고경험이답하다



6월 3일
화요일 오후 6시

미네르바 콤플렉스
국제 회의실

언론사에 직접 몸담고 있는 연사들의 정확한 1:1 컨설팅!
언론계 취업에 관심 있는 학우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부 CONCERT
기자, 아나운서, PD에 종사하는 세 연사가 차례대로 강연 진행

▶2부 CONSULTING
기자, 아나운서, PD 세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별로 컨설팅 진행
(2부 참여는 사전 신청한 학우에 한해서 가능하며 컨설팅 시간에 1:1질문이 이뤄집니다.)

▶CONSULTING 신청 방법
신청 대상 - 우리대학 재학생 및 후학생
지원 자격 - 언론계 취직에 관심이 있고, 청사진 자기소개서를 제출한 학우
참가 방법 - 우리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이메일 fbs1961@gmail.com으로 제출
(그룹별로 지원자 중 최대 5명을 선발하여 진행하며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신청 기간 - 5월 23일 오후 6시 (신청순 선발로 조기 마감될 수도 있습니다.)

FBS외대교육방송국

FBS 02.2173.2489
실무국장 010.4288.2595

흡삭(HUFSAC) 히말라야 루굴라를 정복하다

우리학교 서울배움터 국제학사 3층 한 동아리방 사이로 녹록한 흡냄새가 풍겨온다. 동아리방에 들어서자 '흡삭(HUFSAC)'이라 적힌 빨간 깃발과 구석에 가득 쌓인 등산용품들이 눈에 띈다. 이 곳은 산을 좋아하는 외대인이 모여 있는 외대산악회 '흡삭'의 동아리방이다. 지난 달 4일 흡삭은 외대산악회 50주년을 기념해 히말라야 루굴라(6899m) 원정에 나섰다.

루굴라 원정대는 김범준(무역학과 68)단장과 임일진(서양어·독일어 88)대장을 포함해 범원택(법·법 93), 홍승기(국제지역·국제스포츠 10) 등반대장, 김기범(서양어·네덜란드어 06), 이창희(경영·경영 08), 송민수(영어·영통 10), 장성호(경북대 경제학과 08)대원까지 총 8명의 대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한 달간의 힘든 원정 끝에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루굴라 정복을 이뤄냈다.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로 나아간 흡삭의 루굴라 원정대를 만나기 위해 산악회를 방문했다. 이 날 인터뷰는 원정대원 중 홍승기 등반대장과 이창희, 김기범, 송민수 대원이 함께했다.



▲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홍승기, 김기범, 이창희, 송민수 대원. 원정을 마친 뒤 제일 하고 싶었던 일로 모든 대원이 '3주간 씻지 못해 샤워하고 싶었다'고 입을 모아 대답했다.

흡삭(외대산악회)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홍승기(이하 홍) 1964년에 창설된 흡삭은 그동안 10년마다 한번 꾸준히 해외 원정을 다녀왔다. 1984년에 흡삭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히말라야의 '바른체'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원정등반로를 개척했고 40주년인 2004년에는 네팔 '알통강'을 등정하는 등 우리학교의 위상을 널리 떨치기도 했다. 이번 해는 개교 60주년과 산악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루굴라 원정에 도전했다.

히말라야 루굴라 원정대에 참여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다

송민수(이하 송) 어렸을 때 부모님의 주말산행을 따라다니며 산과 친해질 수 있었다. 입학할 때는 산악회가 있는지도 몰랐지만 지난 해 우연히 우리학교에 산악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들어왔다. 설악산, 한라산 등 국내에 있는 높은 산들을 등반해봤지만 우리나라의 산들은 높아봐야 2000m정도라 더 높은 산을 가보고 싶었다. 또한 극한의 상황에서 스스로의 한계를 시험해보고 싶었다.

히말라야의 많은 산 중 왜 하필 '루굴라'인가

홍 루굴라는 세계에서 아무도 도전하지 않은 산이었다. 미등봉은 사람들이 안 갔던 지역이라 자료를 구하기 힘들다. 우리나라 최초로 인위적인 산소 보급 없이 세계 최단 기간 히말라야 14좌(座)를 등정한 김창호 대장님이 처음 루굴라를 소개했다. 김창호 대장님이 그 옆에 위치한 산을 등정하면서 루굴라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 속 정경을 보고 등반과 문화, 학술적 탐사의 가치가 매우 높다고 판단해 원정을 꾸리게 됐다.



▲ 루굴라 정복의 쾌거를 이룬 임일진 대장과 홍승기 등반대장이 산악회 깃발과 태극기를 들고 정상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히말라야에 간다고 했을 때 부모님과 주변의 걱정과 반대는 없었나

김기범(이하 김) 산악회 활동을 하면서 병원에 실려갈 정도로 크게 다친 적이 있었다. 그래서 부모님이 더욱 반대했지만 루굴라를 가는 이유를 거의 발표하다시피 설득했다.

히말라야 원정을 위해 장기간의 훈련 과정을 꾸준히 거쳤다고 들었다. 원정을 위해 어떠한 훈련을 진행했는지 궁금하다

홍 원정을 위해 약 6개월간 훈련을 받았다. 많은 짐을 지고 걷는 하중훈련과 등반할 때 필요한 전문적인 교육, 장비에 대한 이해 교육 훈련이 진행됐다.

김 일부러 폭설이 오는 겨울에 한라산과 설악산에서 서바이벌 훈련을 하기도 했다. 산을 5000m 이상 올라가면 지상보다 산소가 50% 줄어들게 된다. 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수영을 하며 심폐지구력을 길렀다.

그동안 히말라야 원정 중 죽음을 맞은 산악인은 수도 없이 많았다. 초등원정인 루굴라가 두렵진 않았나

홍 우리가 히말라야에 갔을 때 에베레스트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20명 정도가 죽었다. 그 정도로 위험하지만 우리나라 산도 마찬가지로 늘 위험은 도사리고 있다. 최근 에베레스트 등반의 상업화로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산행해 사고가 많이 난다. 그러나 전문 산악인들은 웬만하면 안전하게 돌아온다.

김 원정에 다녀온 선배들이 '비행기를 타면 절반이 끝난거다'라고 하신 말씀이 공감될 정도로 준비과정이 더 힘들고 복잡했다. 또한, 몇 개월 동안 개인 일정을 포기하며 식량, 장비 등을 준비하고 현지에서 견디기 위한 강도 높은 훈련을 해 오하려 준비과정이 더 힘들었다. 그래서 원정이 두렵기보단 기다려졌다.

등반을 하며 힘들거나 어려웠던 순간은 언제였나

이창희(이하 이) 식량담당으로 하루 세끼 식사메뉴를 선정해야했는데 무척 고민스러웠다. 현지에서 한국요리를 하는 요리사가 있었지만 대원들이 정신적,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밥까지 맛있게 나올까 항상 걱정해 힘들었던 것 같다. 다행히 선배님은 맛있는 음식도 맛있으며 잘 드셔주어 감사했다.

송 나와 이창희 대원은 고산병이 심해 많이 고생했다. 고산병은 사람마다 증상이 다르지만 심하면 온 몸이 아프고 무기력하다. 누워있으면 속이 매스꺼워 잠도 안 오고 머리가 아프다. 그렇다고 밖에 나갈 힘도 없어 움직이지 못해 총체적 난국이었다.

등반을 하며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은

홍 산 정상을 올라가는 능선에서 왼쪽에는 티벳, 오른쪽에는 네팔이 있었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두 나라의 경계선 사이에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며 매우 뿌듯했다. 특히 그 곳은 거의 수직에 가까운 경사 때문에 올라서기 가장 힘들다. 베이스캠프에서 항상 '저기쯤 올라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그 순간을 고대하고 있었기에 더 설레고 좋았던 것 같다.

이 민수랑 나는 심한 고산병으로 지원조에 빠져 정상까지 함께하진 못했다. 정상 등정 성공소식을 듣고 내려오는 대원들을 기다리던 중 내려오던 원택형이 날 바라보며 우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그 당시 모든 대원의 물결이 말이 아니었다. 그동안 고생한 것들이 생각나 마음이 아팠다.

4월 23일 오전 9시 30분 경 원정대가 정상 등정에 성공했을 때의 상황과 기분이 궁금하다

홍 당시 바람이 너무 강하고 추위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다. 게다가 정상에 다다른 지점은 경사가 심한데 로프까지 밑에 두고 온 상태였다. 그래서 나와 대장님만 정상으로 향했다. 정상에서는 바람이 더 심하게 불어 깃발도 제대로 들지 못한 채 사진만 찍고 바로 내려왔다. 날씨가 좋았다면 더 많은 대원들이 정상에서 사진도 멋지게 찍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해 등반성공의 기쁨보단 아쉬움이 더 컸다.

대원들은 앞으로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있나?

대원 모두 원정 마무리를 짓는 게 최우선이다. 아직까진 개인생활이 없다. 원정을 다녀온 만큼 흡삭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특히 16일 지리산 춘계산행이 예정돼 그 준비가 한창이다. 또 7월 백두대간 중주, 10월 창립기념식, 50년사 발간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긴 인터뷰의 마지막 질문이다. 대원들은 어렸을 때부터 산을 사랑하고 좋아했다. 대원들에게 '산'이란 무엇인가?

홍 산은 친구다. 어려서부터 산과 친구처럼 지냈고 산을 통해 사람을 만날 수 있어 좋았다.

김 산은 휴식처다. 산은 일상의 모든 스트레스에서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볼 수 있게 했다. 전환점이 필요할 때나 고민과 번민을 잊을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주는 곳이 산이라 생각한다.

이 결혼한 선배들은 산이 마누라같이 애증의 관계라고 흔히 말한다. 그 말에 공감한다. 산이 참 좋다가도 등반과정이 힘들어 짜증나고 싫어질 때가 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보고 싶고 만나고 싶다.

송 산은 인생이다. 인생에서 좋은 일, 나쁜 일이 반복되듯 산을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행복과 힘듦의 굴곡이 계속된다. 그리고 인생의 목표를 달성해도 그 뒤에 또 다른 인생이 펼쳐지듯 원정 성공으로 끝이 아닌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흡삭은 지난 50년간 미지의 세계를 밝히는 개척자 정신을 실천해왔다. 밖으로는 대학산악부로서 끊임없는 도전정신을 보여줬고, 안으로는 후배 양성을 위한 산악장학기금과 산악문화를 창출하며 선·후배 간의 끈끈한 우애를 과시했다. 최근 대학산악부가 사라지는 추세에도 선·후배가 원정대를 꾸려 등반하는 아름다운 모습에 찬사를 보내며 흡삭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한다.

임유선 기자 88lys@hufs.ac.kr



▲ 등반 중 방문한 고토마을에서 찍은 원정대 단체사진